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6권 제1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5, 4, Vol. 16, No. 1, 75-124.
doi <https://doi.org/10.12964/jsst.25002>

6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및 치료자 역전이에서 나타난
모-자녀 단일체와 이후 경험에 대한
융학과 예술기반 사례 연구

Jungian Arts-Based Case Study on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Experiences in a 6-Year-Old Girl's Sandplay Therapy and
the Therapist's Counter-Transference

곽 수 경
Sookyung Kwak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6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및 치료자 역전이에서 나타난 모-자녀 단일체와 이후 경험에 대한 융학과 예술기반 사례 연구

Jungian Arts-Based Case Study on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Experiences in a 6-Year-Old Girl's Sandplay Therapy and
the Therapist's Counter-Transference

곽 수 경*

Sookyung Kwak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기 표현이 저조하고 또래에 관심이 없는 6세 여아가 모래놀이치료에서 드러난 내용 및 연구자의 역전으로 알게 된 모-자녀 단일체와 그 이후의 발달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매주 1회씩 40분간 진행된 총 19회기의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행동 및 모래장면 상징 자료와, 모래놀이치료 시점과 글쓰기 과정의 연구자 역전이 및 이와 관련된 이미지 자료의 수집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Merriam의 사례 연구 분석 방법과 장미경 외의 융학과 예술기반 연구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시간 순서에 따라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가만히 있음’, ‘성숙을 향한 미숙’, ‘충실하게 현재의 아름다움을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초빙교수 / E-mail: zskwak@dankook.ac.kr



Copyright ©2025,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누리기', '균형점 찾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의 다섯 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문자와 이미지로 기술되었다.

키워드 : 모래놀이치료, 모-자녀 단일체, 발달 과정, 융학파 예술기반 연구, 역전이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experiences through sandplay therapy sessions conducted with a 6-year-old girl exhibiting low self-expression and poor peer interactions. It also examine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toward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The participant attended 19 weekly sandplay therapy sessions, each lasting 40 minutes. Data included the child's behaviors, symbolic representations in her sandpictures, an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during both the sessions and the writing proc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erriam's case study method and the Jungian arts-based research framework proposed by Jang et al. Results revealed a sequential progression across five themes: initially, a state of freezing to avoid mistakes, followed by confronting prematurity as a step toward maturity, then fully embracing the present, leading to finding balance, and finally, stepping into a broader world. These themes were elucidated through descriptive text and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andpictures.

Key words : sandplay therapy, mother-child unity, developmental progression, Jungian arts-based research, counter-transference

I. 서론

Burnett(1911/2011)의 소설 ‘비밀의 회원’에서는 신경질적이고 고집스러운 메리라는 소녀가 나온다. 바쁜 부모 대신 복종하기만 하는 하인들에 의해 양육된 메리는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은 후 친척에게 보내져 그곳에서 만난 사촌 콜린과 마찰을 겪는다. 콜린의 아버지는 사고로 부인을 잃은 후 그 충격으로 아들 콜린을 만나지 않았다. 이에 콜린은 점점 더 괴팍한 성격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콜린은 메리와 친구 디콘을 만난 후 그들과 함께 숨겨져 있던 비밀의 회원을 가꾸며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처럼 영아기 시기에 양육자의 부재나 안정적이지 못한 양육 환경으로 충분히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은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아기 시기는 자기실현을 위한 경향성이 시작되기 때문에(Neumann, 2004/2010)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Neumann(2004/2010)은 출생 직후 영아의 경우 부모에 연결되어 공존하는 ‘모-자녀 단일체’ 상태로 의식을 발달시키므로 이때 음식과 쾌감을 주고 보호하고 감싸주는 선한 모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Winnicot(1971/1997)은 이 시기에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러한 양육자가 존재할 때 영아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강한 어머니로 존재하여, 잘 안아주고 만족스럽게 다루며 영아의 적당한 전능 경험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Winnicot, 1971/1997). Fordham 역시 영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기의 해체와 재통합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Driver, 2022 재인용). 즉, 영아가 자신의 불편한 상태를 울음 등으로 정신적 및 신체적 실체로 해체하였을 때, 어머니가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해체된 실체를 조율하여 줌으로써 영아가 이를 재통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어머니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아동이 영아기 시기에 양육자의 물리적, 심리적 부재를 겪으며 충분히 좋은 양육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Trevarthen(1998)은 영아가 어머니와 소리로 상호작용하는 원시대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다. Mahler 외(1975/1997)는 어머니들이 유아에게 드러내는 내적 상태에 공명하고 이를 성찰하여 표현하여 줌으로써 유아에게 자기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반영적 참조의 틀이 되어 주고, 유아는 이 과정을 통해 감정 표현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육자와 소리로 상호작용하는 생애 초기의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점검할 반영적 참조의 틀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또한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이차적으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도 초래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사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Salovey & Mayer, 1990; 신지예, 홍성두, 2016 재인용)인 ‘정서 지능’이 낮으면, 정서의 이해와 조절 부족으로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해 대인 관계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과잉행동을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문용린, 1997; 김진숙, 전순영, 2015 재인용).

이처럼 아동이 안정적인 모성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감정 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에 이어 대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핍이 발생한 발달 초기 단계들을 다시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하며(Mahler et al., 1975/1997), 이때 모래놀이치료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는 Kalf가 고안한 심리치료 방법으로 Lowenfeld가 아동과의 작업에서 놀잇감을 이용했던 세계기법에 Jung의 분석심리학을 적용하여 발달해 왔다(Turner, 2005/2009 재인용). 놀이는 아동이 발달해 나감에 따라 자신의 전능감에 대한 환상이 외적 현실 세계에 적응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간대상의 역할을 한다(Winnicott, 1971/1997). 특히 모래와 각종 놀잇감을 활용하는 모래놀이치료는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모성 역할을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에서 원형적 모성 에너지에 의해 다시 이루어 가는 것을 치료기제로 하므로(장미경, 2017), 모래놀이치료의 현장에서는 판단 받지 않고 자신의 전능감을 표현하고 이를 전적으로 공감 받는 경험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모래놀이치료는 아동이 충분한 보호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핍된 초기 단계를 충족시키고 자아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Kalff, 2000/2012).

모래놀이치료가 결핍이 발생한 발달 초기 단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발달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음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권미라(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고착되어 있던 부정적인 모성의 원형적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이루어 외부의 실제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박서희(2019)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동이 정서적 발달을 이루어 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박혜영(2015)은 불안정 애착 유형 아동에게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의 여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행동 관찰 및 모래장면의 상징 분석에 더하여 모래놀이치료 진행 시점과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한 연구자 역전을 함께 탐색하였다. 역전은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반응을 의미한다(천성문 외, 2021). Fordham(1957/2013; 장미경 외, 2024 재인용)은 치료자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은 치료자에게 투사된 내담자의 정신 내적 과정의 확장인 것으로 역전을 설명하였다. 장미경 외(2024)는 숙련된 모래놀이치료자인 경우 자신이 내담자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치료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의식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된 후 의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모래놀이치료 실시 당시에 경험한 역전이와 시간이 지난 후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한 역전이를 자유연상 및 꿈을 활용하여 기술했다.

질적연구에서는, 탈맥락화된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활세계의 체험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전인간적 연구자로 연구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Angrosino & Rosenberg, 2011). 장미경 외(2024)도 병행적 전이/역전이에 대한 더욱 깊은 앎(knowing)을 추구하며 일상생활과 연구의 통합을 시도하는 융학과 예술기반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로 경험하는 모래놀이치료 실시 시점의 역전이와 ‘연구자’로 경험하는 글쓰기 시점의 역전이를 함께 주목함으로써 전인간적 관점에서 치료자와 연구자의 입장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자기 표현이 저조하고 또래에 관심이 없는 6세 아동이 모래놀이치료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경험하는 모-자녀 단일체와 그 이후의 발달 경험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행동 관찰 및 모래장면 상징 분석에 더하여 모래놀이치료 시점과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한 연구자의 역전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저조하고 또래에 관심 없는 6세 연구 참여자가 모래놀이치료에서 드러낸 내용 및 연구자의 역전이로 알게 된 모-자녀 단일체와 그 이후의 발달 경험은 무엇인가?”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거나 측정하는 정량 연구가 아닌 연구 참여자가 습득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정성 연구(Merriam, 1998/2005)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정성 연구의 다양한 유형 중 독특한 상황과 그 안에 포함된 의미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전개하여 이해를 얻는 사례 연구 방법론으로(Stake, 1995/2000)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묘사이며,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 중 현상과 정황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Yin, 2014/2016). 사례 연구는 표준 통계적인 접근이 놓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Abramson, 1992) 이를 수렴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특징을 가진다(Yin, 2014/2016).

아울러, 본 연구는 융학과 예술기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융학과 예술기반 연구는 지식의 본질 추구를 위해 사고 뿐 아니라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져 왔던 인간의 감정, 감각, 직관, 상상 및 상징 이미지로 드러나는 무의식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장미경 외, 2024). 모든 인간은 창조적 삶의 방향으로 작용하려는 추동을 가지므로, 예술가의 작품뿐 아니라 일반 개인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한 모든 결과물도 모두 예술적 창조로 볼 수 있다(장미경 외,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의식 차원의 지식에까지 접근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모래상자에 표현한 모래장면 사진과 연구자가 역전이와 관련하여 수집 및 새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본 선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본 선정은 연구자가 지식을 발견,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사람을 연구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Merriam, 1998/2005). 연구자는 이어나 동생 출생, 초등학교 진학 등, 큰 변화를 앞둔 아동의 적응 문제를 주호소문제로 아동과 함께 상담실을 방문하는 어머니들을 자주 만나왔다. 자기 표현이 저조하고 친구가 없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더 큰 걱정을 호소하였다. 연구자는 그러한 아동들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자기 표현이 저조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어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 만 6세 여아의 어머니에게 본 연구의 참여를 제안하고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후 비슷한 내담자를 만날 때마다 본 연구 참여자의 모래놀이치료 분석 내용을 참고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면을 추가로 발견하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 참여자의 모래놀이치료 종료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연구자가 다시 경험하는 역전을 추가 탐색하여 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36세 동갑인 부부의 외동딸로, 13개월까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이후 26개월까지 외갓집에서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다. 당시 부모는 직장 근무로 주말에만 연구 참여자를 만났다. 연구 참여자는 26개월에 집으로 돌아와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이사로 만 4세와 만 6세 3월경에 보육 기관을 옮겼다.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는 연구 참여자가 만 4세 경 두 차례에 걸쳐 임신 중기 이후 유산을 했으며, 각 3개월의 회복 기간동안 조부모님이 연구 참여자의 양육을 전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첫인상은 큰 눈과 흰 피부, 긴 머리카락으로 예쁜 모습이였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도 양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말이 거의 없었으며,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앉아 피겨장을 응시하였다. 말이 없고 타인과 교류가 저조하다는 주호소문제에 자폐 스펙트럼 가능성도 고려하였으나, 접수면접 및 모래놀이치료 시 자폐 스펙트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문장 완성 검사와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는 어머니 이외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저조하고 부적응 상태에 있는 점, 자신의 내면과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점, 사회적 접촉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율성이 부족한 점, 퇴행과 유아기적 특징이 드러나는 점으로 요약되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 19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총 19회기의 모래놀이치료 과정 및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본 연구의 글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매주 1회 40분간의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였다. 부모상담은 연구 참여자 어머니의 일정에 따라 대면 또는 전화 통화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모래놀이치료에서 만든 장면은 각 회기 종료 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모래놀이치료 및 부모상담의 대화 내용은 연구 참여자 어머니의 원에 의해 녹음하지 않았으며 수기로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 및 치료자로서의 역전이는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당일에 기록하였다.

글쓰기 단계에서 경험한 연구자 역전이는 상기 자료를 연구의 형식에 맞춰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과거 사건, 연상되는 이미지, 꿈을 수집하였다. 휴대폰 메모 앱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수시로 적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과거에 촬영한 사진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Merriam(1998/2005)이 제시한 자료 분석 방법과 장미경 외(2024)가 제시한 융학파 예술기반 연구 자료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다음의 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연구 참여자의 말과 행동, 연구자의 역전이, 연구 참여자 어머니의 보고를 모래놀이치료 실시 당일에 문서로 정리하였다. 둘째, 모래상자 사진의 상징해석을 실시하였다. 상징은 모래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정, 모래장면에 대한 연상, 모래장면 전체의 특징, 모래장면에서 처음 주목한 부분, 모래장면과 연관된 신화나 동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해 알게 된 부분에 연구자 스스로 답을 하며(장미경, 2017) 해석하였다. 셋째, 문서로 정리된 자료를 읽으며 반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묶어 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문서로 정리된 자료와 도출된 주제를 연구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다시 연상한 내용을 역전이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역전이 기술은 자료와 주제를 읽으며 떠오르는 연구자의 감정, 감각, 직관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문자 기술에 더하여 관련 이미지를 수집 또는 창작하

였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 표현과 연구자 역전으로 나누어 문자와 이미지로 기술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Kvale(1994)이 제시한 전문가적 타당도, 의사소통적 타당도 및 실용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에 대해 이론적 해석을 하였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타당도(Kvale, 1994; 김영천, 2016 재인용)를 확보하기 위해 모래놀이치료 슈퍼바이저 및 Jung 분석가 자격을 갖춘 교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모래놀이치료 슈퍼바이저 3인의 검토를 받았다. 둘째, 해석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의사소통적 타당도(Kvale, 1994; 김영천, 2016 재인용)를 위해 상담학 박사수료 2인에게 독자로서 연구를 이해하는데 역전이 기술이 도움이 되었는지 의견을 구했다. 본 연구는 치료자 또는 연구자만의 주관적 이해인 역전이의 가치를 존중하므로, Kvale(1994)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대신 연구자 역전이 기술이 연구 참여자의 경험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사소통하며 타당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 타당도(Kvale, 1994; 김영천, 2016 재인용)를 위해 모-자녀 단일체와 이후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치료자로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기술함으로써 실제 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아동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모래놀이치료 내용 및 모래상자 사진에 대한 연구 목적의 공개에 동의를 얻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익명으로 기술되며,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 정보가 변경되어 기재됨을 설명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Ⅲ. 연구 결과

자기 표현이 저조하고 또래에 관심이 없는 연구 참여자가 모래놀이치료에서 드러낸 내용 및 연구자의 역전이를 통해 알게 된 모-자녀 단일체와 그 이후의 발달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섯 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각 주제는 연구 참여자가 행동, 언어 및 상징으로 표현한 바와, 연구자가 모래놀이치료 과정 및 글쓰기 시점에서 경험한 역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1.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가만히 있음

1) 연구 참여자 표현: 얼음 공주의 얼음처럼 있기



[사진 1] 1회기 모래상자

연구 참여자는 도도한 태도로 유치원에서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붙었다. 치료실에서도 말없이 피겨장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삽으로 모래를 담고 쏟는 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치료 후 조명을 끈 채 촬영한 모래장면에는 손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 의식 차원에서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나 무의식 차원에서는 역동적인 모습을 가진 것 같았다.

Weinrib(2004)가 제시하였듯 연구 참여자는 이 첫 번째 모래상자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표현하는 듯했다. 4세 전후의 아동이 하는 놀이인 모래를 담고 쏟는 놀이를 반복하며(Bowyer, 1970) 담아주는 경험이 필요함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겹쳐 있는 불가사리처럼 충분히 모-자녀 단일체를 경험해야 이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슬픈 눈과 웃는 입의 혼란스러운 얼굴로 브이(V) 포즈를 하는 듯한 모래장면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결국 콧구멍을 막은 삽을 빼고 스스로 숨을 쉬며, 얼굴을 찡그릴 나쁜 냄새 든 미소 지을 좋은 향기든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자 역전이: 잘못 건드려 망칠 것 같음



[사진 2] 망쳐진 관계(직접 촬영)

예쁘고 뽀뽀해 보이는 연구 참여자를 보자마자 연구자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이 아이가 최고로 근사한 초등학교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런데 고작 20분이 지났을 뿐인데 연구 참여자는 “다 했다.”라고 혼잣말을 했다. 연구자는 갑자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줘야 하나 싶어 당황스러워졌다.

연구자가 임신했을 때 아기를 최고로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육아 서적을 읽으며 출산 준비를 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었다. 연구자는 피곤함에 지쳐 아기가 울어도 외면하기 일쑤였고, 할 수 없이 아기를 안아 들게 되어도 아기를 향해 짜증을 내곤 했다. 출산 전부터 공부한 육아 지식은 무

용지물이 되었다. 엄마 잘못 만나 아이가 망쳐지기 전에 차라리 손을 떼야 할 것 같았다. 결국 심리상담을 받았고, 이후 성취 욕구에 대해서도 장기간 교육 분석을 받았다. 그래서 ‘최고’의 수준은 존재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음을 체득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다시 근사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든 것이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만 들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마음처럼 연구 참여자도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얼음처럼 굳어 있을 것이란 상상을 기록지 한쪽에 기록할 뿐이었다.

본 연구의 글쓰기는 모래놀이치료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드러낸 찬란한 발달을 제대로 글로 옮겨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시작도 못 한 채 그저 빈 모니터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어쩌면 연구 참여자도 이런 기분이었지 모르겠다. 비록 무의식 수준일지라도 연구 참여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더 조심하느라 아무 말도 못 하였을지도 모르겠다.

2. 성숙을 향한 미숙

1) 연구 참여자 표현: 어린 아기부터 다시 자라가기



[사진 3] 2회기 모래상자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 왕자’에서는 오빠들이 백조로 변한 이야기가 나온다(Andersen, 1838/2017). 스파르타 왕 틴다레오스의 아내인 레다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동침하여 출산하였는데, Campbell과 Moyers(1991/2020)는 이를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두 번째 탄생으로 설명하였다. 이 동화와 신화를 떠올릴 때 2회기에서 배를 모래 위로 밀어 올린 백조는 의식화되지 못한 아니무스처럼 느껴졌다.

바다 표면을 향해하는 배는 무의식의 표면만을 의식한 채 살아가는 인간과 닮아 보였다. 아니무스의 백조가 의식화되어 성장을 촉진해 주기를 기대했다.

3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는 모래상자 가운데에 공주의 방을 꾸미고 키 큰 나무들로 가린 후 동그랗게 선을 그어놓았다. 나무로 폐쇄된 동그란 공주의 방은 길가메쉬가 밀가루로 그린 원 안에 누워 꿈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받는 장면(김산해, 2020)을 떠올리게 하여 조만간 그 방 안에서 자기(Self)를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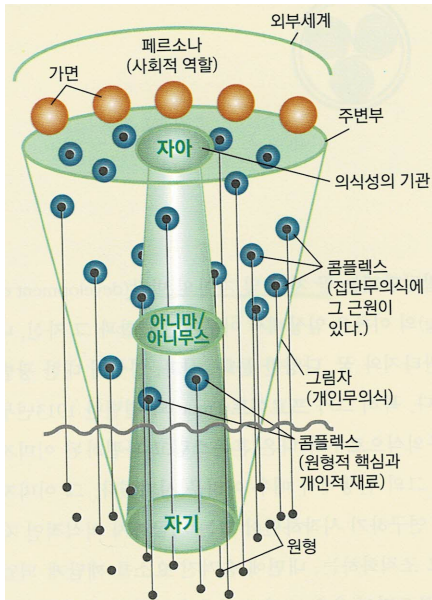
백조가 밀어주는 배에 더하여, 3회기에는 기차길이 있어야 움직이는 기차도 등장했다. 4회기에서 백조는 점점 더 배에 무관심해졌고, 기차길은 더욱 선명해졌다. 5회에서는 기차길을 만들 공간이 더 충분해졌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모래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어머니에



[사진 4] 5회기 모래상자, 전면



[사진 5] 5회기 모래상자, 측면



[사진 6] 에스텔 와인리브의 정신 다이어그램 (Weinrib, 1991; 장미경, 2017 재인용)



[사진 7] 7회기 모래상자

게 보내주기를 자주 요구하였는데, 5회기에 어머니께 드린 사진에는 기차가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성장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계속 어머니 품 안에 머물고 싶은 욕구의 표현인 것처럼 느껴졌다.

7회기에서는 나무가 사라지고 구슬이 뿌려졌다. 구슬은 Weinrib(1991)의 정신 다이어그램에서 의식에 떠오른 원형 이미지처럼 보였다. 바로 다음 8회기에 연구 참여자는 마스크를 그렸다. 이는 마치 정신 다이어그램 표면의 페르소나에 주목하라는 무의식의 안내처럼 느껴졌다.

7회기부터는 기차길이 없어도 달릴 수 있는 트럭이 등장했다. 7회기에 나란히 서 있던 아기와 공주 피겨가 8회기에는 서로 바라보게 놓였는데, 이는 독립된 존재로 서로를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기대하게 하였다. 8회기에는 비어있던 원형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다. 어머니와 한 몸으로 인식하는 심리발달 초기의 우로보로스 단계는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로 각인되어 있으므로(Neumann, 2004/2010), 이제는 어머니와의 친밀했던 접촉을 기억하며 스스로 자신을 위해 음식을 차릴 수 있는 성장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어머니의 임신을 알게 된 후 11

회기에서 공주의 방이 다시 나타났다.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나무가 작아졌다는 변화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하트 모양 구슬을 몰래 가져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임신으로 애정이나 돌봄 등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상실(장미경, 2017)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하트 구슬을 가져 가려다 실패한 후 연구 참여자는 모래상자를 보며 “딱 봐도 사막이네.”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황폐한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탄식으로 들렸다.

2) 연구자 역전이: 관찰만 하지 말고 함께 느끼기

3회기에서 아기 피겨를 놓으며 자신이라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를 보며 이미 심리적 발달이 시작된 것일까 기대가 되었다. 그러자마자 연구 참여자는 큰 나무들로 공주의 방을 가리고 삼으로 선까지 그었다. 연구 참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연구자의 앞선 기대가 연구 참여자에게 침범적으로 작용하여 피겨로 가리며 방어하듯, 어머니의 공감적이지 못한 태도가 연구 참여자에게 침범적으로 작용하여 침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매 회기 공주의 방만 만들었다. 지겨운 마음도 들었다. 5회기의 촘촘히 놓인 피겨에 충전재까지 덮인 모래상자에서는 답답함까지 느껴졌다. 손수건으로 피겨를 덮을 때는 그 답답함은 더 심해졌다. 지겹고 답답한 마음은 졸음으로 연결되었다. 집중하지 못하고 졸음이나 느끼는 미숙한 치료자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사진 8] 아이들과 워터파크 (직접 촬영)

글쓰기 과정에서 과거 아이들과 워터파크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연구자는 파도풀 가장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파도를 버텨내며 서 있기 꽤 힘들다 싶었는데, 결국 파도에 밀려 넘어졌다. 할 수 없이 사진을 포기하고 아이가 있는 파도풀 한가운데로 갔다. 오히려 한가운데가 파도도 세지 않고 편안했다. 지금까지도 아이와 함께 파도에 몸을 맡기던 그 감촉이 즐거움의 정서와 함께 남아있다. 이 기억은 연구자가 치료자의 담아주기를 ‘다른 생각 하지 않고 내담자를 관찰하며 분석해 내는 행동’에 국한하여 이해하였음을 발견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옆에서 관찰하고 분석만 하느라 정작 연구자 몸으로 느껴지는 정서에는 함께 접촉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토록 쏟아졌던 졸음을 충실히 느꼈다면, 잠이 들락 말락 하는 잠들기 직전처럼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가 하는 정신의 내용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3. 충실하게 현재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1) 연구 참여자 표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



[사진 9] 9회기 모래상자

9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는 신부의 베일을 바라보며, “이것이 없으면 더 예쁘겠다!”라고 말하고 거침없이 베일을 떼었다.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다가 주례가 성혼을 선포한 후 베일을 걷는다. 연구 참여자가 베일을 떼어내는 순간도 신랑과 신부의 성혼이 선포되는 순간처럼 보였다. 음식이 차려진 원형의 테이블도 피로연 식탁처럼 보였다.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모래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전 회기에 비해 피

겨 배열이 다소 어수선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미소만 짓고 계셨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제 연구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감동을 찾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모습이 되었다.

Weinrib(1991)의 정신 다이어그램 이미지에서의 의식으로 떠오른 원형 이미지처럼 보였던 구슬이 트럭 두 대에 한 개씩, 아니무스의 백조 등에 한 개씩 놓여있다. 결혼은 결말이 아니며, 개별적인 존재의 둘이 서로의 희생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의례(Campbell & Mayers, 1991/2020)이므로, 이후 새로운 단계에서 이 구슬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졌다.

2) 연구자 역전이: 예전에는 모르던 더 좋은 것들과의 만남

9회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베일을 떼어내는 순간 연구자의 팔에 소름이 돋으며 실제 결혼식 장면을 보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의 모래상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연구 참여자의 모습에서도 연구자는 몽클한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연구자는 과거 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계속되는 치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재발의 두려움이었다. 혹여 스트레스를 받아 재발할까봐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 덕에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줄 여유가 생겼다. 막내의 말랑말랑한 손, 아침마다 걷던 공원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풍경, 단골 커피집 사장님의 농담 한마디. 재발의 두려움 한복판에서 발견한 것은 일상의 아름다움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러한 나날이면 충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무



[사진 10] 매일 달라지는 공원 풍경 (직접 촬영)

언가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상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도 난다. 무엇이 연구 참여자가 어머니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했을까 궁금했는데, 아마 연구 참여자도 연구자처럼 예전에는 모르던 훨씬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연구자에게 예전에 모르던 훨씬 좋은 것이 일상의 아름다움이라면, 연구 참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좋은 것이 아닌, 내게 좋은 것을 할 때 누리는 기쁨일 것이다.

4. 균형점 찾기

1) 연구 참여자 표현: 최대한 버텨보기

5회기에 연구 참여자는 찰흙으로 만들어진 피겨를 물에 담그면 안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래상자의 물을 스펀지로 짜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어머니에게 칭찬 받을만한 모래장면 만들기에만 주력하는 모습 때문에 만든, 사진 보낼 때 쿠폰을 사용하는 규칙도 잘 지켰다.



[사진 11] 10회기 모래상자

어머니의 임신을 알게 된 직후 진행된 10 회기에서는 페르소나 원형으로 사용된 구슬이 교복 입은 소녀를 맞출 듯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각각의 변용은 죽음과 재탄생, 즉, 낡은 수준에 대해서는 죽고 다음 수준에서 새롭게 출현하여 재탄생하는 과정이다(Wilber, 2005/2016). 그러므로 언니가 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텐데, 바로 이러한 공포가 모래상자에 표현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곧 12회기에 어머니의 임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래 위에 양손으로 소용돌이 그렸다. 소용돌이는 생명과 자연 에너지의 원천으로 상징되며, 힌두교에서는 ‘임신’을 뜻한다(Cooper, 1978/1994). 두 개의 소용돌이는 모양 그 자체로 젓가슴처럼 보이기도 했다. 풍요와 성장 및 분만을 상징하는 고둥(Cooper, 1978/1994) 모양의 주전자로 물을 부어 소용돌이를 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13회기에서는 작은 침대를 모래상자에 놓으며 동생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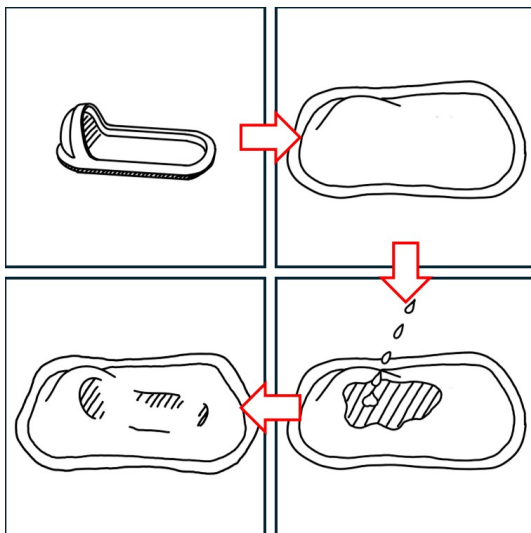
그럼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동생과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한듯했다. 14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가 항상 자신이 보낸 모래장면 사진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에게도 태어날 동생에 대한 질투심을 표현하고, 어머니에 몸을 꼭 붙여 낮잠을 자며 스스로 모-자녀 단일체 경험을 만들기도 했다. 급기야 16회기에 연구 참여자는 모래를 바닥에 뿌리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마치 동생을 본 아이가 자기도 아기라고 끝까지 우기며 버티는 것처럼 보였다.

2) 연구자 역전이: 선 행동, 후 확인도 한계를 확인하는 꽤 괜찮은 방법

10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는 쏟아지는 구슬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교복 입은 소녀를 만들었다. 이제는 동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나눠야 하고 언니의 의무도 부여받게 되겠지만 이를 용기 있게 직면하겠다는 다짐이 느껴져 몽클하기도 했다. 이전과는 다른 척박한 모래상자가 안타까웠으나, 모래상자에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운 존재가 발생하는 개척지가 될 수 있

음(Turner, 2005/2009)을 생각하며 연구자 스스로를 위로했다.

16회기에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눈치를 살피며 모래를 바닥에 뿌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껏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구 참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연구자가 어디까지 참아주나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실망이 되었다. Eliade(1958/1996; Turner, 2005/2009 재인용)는 뿌리는 행위에 대해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의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11회기에 표현된 사막 같은 내면이 모래를 뿌리는 행동을 통해 비옥하게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실망을 견디기로 다짐했다.



[사진 12] 꿈 장면 스케치 (직접 그림)

연구의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재래식 변기에 소변을 보는 꿈을 꾸었다. 변기 밖으로 소변이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런데 갑자기 변기 위로 하얗고 보송한 이불이 덮였다. 일단 이불이 폭 젖어야 변기 모양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불 위로 편하게 소변을 보았다. 연구자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연구 참여자의 태도가 꽤 씹하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이는 일단 행동부터 한 후 연구자의 반응을 보며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려는 의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를 망칠까 봐 조심스러워 아무것도 못 했던 첫 회기에서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5.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1) 연구 참여자 표현: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기

어머니와 함께 모래장면을 만든 15회기에서 어머니는 건물 피겨로 마을을 만들었다. 16회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도 건물 피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7회기에서는 외관이 열주로 장식된 르네상스풍 건물을 연구 참여자 바로 앞에 놓았다. 르네상스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야기했음을 떠올릴 때, 동생이 생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변화를 앞둔 연구 참여자의 현실을 이 르네상스풍 건물로 표현하는 것 같았다. 모래상자에서 연구 참여자 바로 앞부분은 연구 참여자가 현재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므로(Turner, 2005/2009),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겪어내야 하는 변화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Ammann은 모래상자의 좌측 반은 조금 더 무의식적인 것으로, 우측 반은 의식적인 외적 세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Turner, 2005/2009 재인용), 17회기 모래상자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의 흐름은 연구 참여자가 현실에 적응하며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듯했다. 폭포 위에서 떨어뜨린 구슬도 트럭에 실려 집 앞에 도착했는데, 폭포 위에 존재하며 위치 에너지로 머물던 내면의 힘이 운동 에너지

로 전환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시적 자연물인 폭포를 떠나 연구 참여자가 살아가는 현실의 마을로 이동하였다. 대지 및 어머니 자연으로 상징되는 자기 원형으로부터 자아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공급됨을 표현하는 듯했다.

18회기에서는 마을이 만들어졌다. 다리 위를 지나가는 교복 입은 소녀와 다리 아래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이 십자가 모양을



[사진 13] 18회기 모래상자

이루고 있었다. 공주들이 학교에 모여 있는 모습은 연구 참여자의 실제 생활에서 또래 관계가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였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다음 회기에 종결하기로 한 것을 연구 참여자도 알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에게 보내드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며, 자동차와 건물들을 뒤집어 놓았다. 어수선한 모래상자는 아직 종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생각되었다.



[사진 14] 19회기 모래상자

마지막 회기인 19회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리를 가장 먼저 가져와 가운데에 놓으며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자신의 집을 다리 앞 가장 큰 집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서도 연구 참여자가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자아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추동(Bradway, 2001)이나 주도성을 의미하는 자동차를 여러 종류 가져다 놓으며 아침이 니 주차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대인관계 형성 욕구가 의식화된 것의 표현인 것으로 느껴졌다. 어머니가 가져온 아기를 그대로 둔 것도 아기 동생을 자신의 삶에 새롭게 등장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차장에 멈춰있는 자동차와 아기 동생보다 크기가 작은 자신 등, 연구 참여자가 달성해야 하는 과업이 여전히 표현되었다.

2) 연구자 역전이: 되돌아가는 것이 더 좋음



[사진 15] 꿈 장면 (ChatGPT 생성)

18회기에서 사진을 찍기 직전에 자동차와 건물들을 뒤집어 놓은 것은 아직 종결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더해 비밀스러운 내면을 유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느껴졌다. 치료 기간 내내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이제는 연구 참여자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초등학생 역할만으로도 힘들 텐데 언니의 역할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가 힘겨울 것 같다는 걱정을 하며 모래놀이치료를 종결했다.

본 연구의 글쓰기가 끝나갈 무렵, 연구자의 막내 아이가 들개 두 마리 옆에 서 있는 꿈을 꾸었

다. 막내에게 작은 침낭 안으로 얼른 들어가라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쳤으나 막내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꿈에서 깬 후 생각해 보니 그 개들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크지 않았고, 침낭도 보호 장비와는 거리가 멀었다. 막내가 도망가려 했는지 또는 개와 친구가 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대로 보호해 줄 것 같지도 않은 침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한 막내의 선택이 옳음을 깨닫는다. 이 꿈처럼 이제 초등학생이자 언니로서 모래놀이치료실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 또한 꼭 나쁘지만은 않음을 깨달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자기 표현이 저조하고 또래에 관심이 없는 6세 아동이 모래놀이치료에서 드러낸 내용 및 연구자의 역전을 통해 알게 된 모-자녀 단일체와 경험과 그 이후의 발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의 다섯 주제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는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가만히 있음’이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 언어 및 상징 표현은 ‘얼음 공주의 얼음처럼 있기’로, 연구자의 역전은 ‘잘못 건드려 망칠 것 같음’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4세 전후 아동의 놀이를 반복하며 답아주는 경험이 필요함을, 슬픈 눈과 웃는 입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그리며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과거 아기를 잘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했던 시절과 글쓰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제대로 읊기지 못할 것 같아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연구 참여자도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추측을 했다.

이러한 첫 번째 주제는 주호소문제였던 연구 참여자의 저조한 자기 표현 상태를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얼어붙어 있던 연구 참여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양육자의 심리적 부재 때문으로 보였다. 첫째, 양육자로부터 감정을 적절하게 반응 받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Mahler 외(1975/1997)는 어머니가 유아의 내적 상태에 공명하고 표현하여 줌으로써, 아동이 자기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반영적 참조의 틀이 되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는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부모님과 합의 시기에 배우자가 느꼈을 불편함을 뒤늦게 깨닫기도 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성향상 어머니가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히 반영적 참조의 틀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둘째, 양육자가 의사소통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어머니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등으로 연구 참여자의 상황을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인지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주호소문제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아버지도 합가하며 겪은 불편함을 모호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외조부모가 주로 TV를 시청하며 연구 참여자들 돌보았다는 보고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감정 대응 능력을 모방하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가 두 차례 유산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연구 참여자가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수용받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넷째, 주양육자와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었던 점도 일관성 있게 감정을 수용받는 경험의 부족을 야기하였을 수 있다. 어머니는 조부모와 달리 엄격한 방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버릇없이 굴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던 연구 참여자는 애착이 덜 형성된 어머니에 대해 자신의 욕구를 나타내는 대신 어머니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했을 수 있다. 욕구 및 감정 표현이 미숙할 경우 대인관계에서 위축 또는 과잉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문용린, 1997; 김진숙, 전순영, 2015 재인용) 결과에서 보듯이, 연구 참여자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신 타인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이루어 갔고, 그 결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위축되는 주호소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 주제는 ‘성숙을 향한 미숙’이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 언어 및 상징 표현은 ‘어린 아기부터 다시 자라가기’로, 연구자의 역전은 ‘관찰만 하지 말고 함께 느끼기’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배, 기차, 트럭으로 내면의 성장을 표현하였다. 의식에 떠오른 원형 이미지처럼 보이는 구슬도 사용했다. 연구자는 줄음이 오는 역전을 경험하였는데, 이를 더 충실히 느꼈다면 의식에 드러나기 직전에 있는 정신 내용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러한 두 번째 주제는 퇴행의 치료적 기능을 제시한 Balint(1968/2011)의 관점과 일치한다. 아동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모-자녀 단일체 상태를 경험해야 이후 발달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결핍이 발생한 발달 초기 단계를 다시 경험하도록(Mahler et al., 1975/1997), 즉 치료적으로 퇴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Balint(1968/2011)는 대화를 통한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환자들을 연구하며 퇴행의 시기를 어머니, 아버지, 아동의 삼자관계와 관련된 오이디푸스 시기와 어머니와 아이의 양자관계가 관련된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로 구분하였다. Balint(1968/2011)는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로 퇴행하는 환자의 경우 침묵과 위축을 보이고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다가 창조적 방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기도 함을 밝혔는데, 이때 치료자는 어떠한 해석이나 개입 없이 환자의 노력과 성장을 보호하는 역할로 존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참여자가 공주의 방이라는 일상과 분리된 곳에서 줄음을 야기할 정도로 조용

히 머무는 동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창조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느끼며 그 노력에 마음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충실하게 현재의 아름다움을 누리기’이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 언어 및 상징 표현은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로, 연구자의 역전이는 ‘예전에는 모르던 더 좋은 것들과의 만남’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신랑과 신부 피겨로 결혼식 장면을 완성하고, 이를 어머니와 할아버지께 자랑스럽게 공개하였다. 항상 어머니가 좋아할만한 모래장면을 만들고 싶어 하던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며 어수선했던 보이는 모래장면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모습에 몽클함이 느껴졌다. 이는 미래에 암이 재발할까봐 불안을 느꼈던 연구자가 현재의 평온함에서 가치를 찾은 상황을 떠올리게 하였다.

현재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연구 참여자의 모습은 게슈탈트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금-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의 모습이었다(권석만, 2012). 개인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불편한 경험을 없애기 위해 과거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나, 이는 오히려 삶에 대한 회피와 투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Luoma et al., 2007/2012). 연구 참여자도 이전에는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고 참아내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Luoma 외(2007/2012)가 현재 순간과 만남으로써 유연한 자기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듯, 연구 참여자도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고 어머니에 맞추고자 했던 시도를 멈추고 ‘지금-여기’를 충실히 느끼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였다.

네 번째 주제는 ‘균형점 찾기’이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 언어 및 상징 표현은 ‘최대한 버텨보기’로, 연구자의 역전이는 ‘선 행동, 후 확인도 한계를 확인하는 꽤 괜찮은 방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찰흙 피겨를 다루는 규칙과 사진 전송 규칙을 점차 수용해 나갔다. 그러나 바닥에 모래를 뿌리는 새로운 미운 행동에 실망감을 느꼈다. 연구자는 이불에 덮여 번기가 안 보이는 화장실 꿈을 꾸며, 일단 행동해 보며 상대방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임을 이해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밀고 당기기는 Mahler 외(1975/1997)의 분리개별화 연구에서 개별성 확립하는 단계 직전의 재접근기 단계의 특징과 유사했다. Mahler 외(1975/1997)는 아기와 어머니가 하나인 공생의 상태에서 보호막을 뚫고 부화하는 부화 단계, 기거나 기어오르는 기술을 연습하며 어머니에게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연습 단계, 아동이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재접근기 단계, 어머니에 대해 일관된 고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개별성 확립 단계로 아동의 분리개별화 단계를 제시하였다. 재접근기 단계에서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의존하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니는 이에 지치지 않고 아동에게 정서적 이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Mahler et al., 1975/1997). 이처럼, 연

구 참여자의 밀고 당기기가 이해받고 수용 받는 경험은 다음 단계로 발달해 나가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이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 언어 및 상징 표현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기’로, 연구자의 역전은 ‘되돌아가는 것이 더 좋음’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다리, 르네상스풍 건물 및 폭포 위에서 떨어뜨린 구슬을 트럭에 싣고 마을로 옮겨오는 놀이로 발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보낼 모래 장면 촬영 전 피겨들을 뒤집어 놓던 연구 참여자의 모습에서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종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럼에도 들개를 피해 침낭 안으로 아이를 억지로 들여보내려다 실패한 연구자의 꿈 이후, 초등학교생이자 아기 동생의 언니로서 일단 세상에 나가보는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음을 깨달았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는 모래장면 그 자체로도 Kalff(2000/2012)가 제시한 자아발달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집단에의 적응 단계, 즉, 하나의 인격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구성원이 되는 단계에 있음을 모자람 없이 표현하고 있었다. Kalff(2000/2012)는 모래놀이치료에서 Neumann이 제시한 심리적 발달 과정이 재현되는 것을 발견하여 동식물 단계, 투쟁 단계, 집단으로의 사회화 단계로 이론화하였다. 동식물 단계는 동물과 식물 위주로 표현되고, 투쟁 단계에서는 대결이나 전쟁이 반복하여 등장하며 주인공은 점진적으로 강한 힘을 가져 나간다(Kalff, 2000/2012). 마지막으로 집단으로의 사회화 단계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나타난다(Kalff, 2000/2012). 연구 참여자의 마지막 모래장면이 예견했듯,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생이자 아기 동생의 언니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갔다. 3개월 후의 추수 회기에서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는 둘째 양육으로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연구 참여자가 즐겁게 학교를 잘 다녀 걱정을 덜었다고 하며, 오히려 친구들과 노느라 학원에 늦는 것이 걱정될 정도라고 전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모-자녀 단일체와 그 이후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모-자녀 단일체와 이후 발달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 본 연구 결과는 모-자녀 단일체 경험의 결핍을 주호소문제로 하는 상담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모래장면 사진과 연구자 역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 및 연구자 역전기에 대한 무의식 차원의 지식에까지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셋째, 연구자의 역전이 탐색에 있어서 모래놀이치료 과정과 글쓰기 과정의 역전을 각각 탐색함으로써 모래놀이치료자이자 연구자인 전인격적인 존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치료자 경험과 연구자 경험을 통합하여 생활세계의 체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Angrosino & Rosenberg, 2011) 실제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시점에서 약 6년이 경과된 후 글쓰기를 시작하여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하는 동시에 글쓰기를 실시하여, 치료 관계에서 발생하는 치료자의 역전이와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역전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 역전이와 관련된 이미지 고찰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하거나 만들어 낸 이미지의 상징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경험까지 적극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모래놀이치료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의해 한정된 회기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충분한 기간동안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실제 삶에서 대인관계 능력을 습득 및 적용해 나가는 경험까지 탐색하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라 (2017). A 10-year-old girl's overcoming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nd its relationship to ego development.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8(1), 1-32.
-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학지사.
- 김산해 (2020).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휴머니스트출판그룹.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아카데미프레스.
- 김진숙, 전순영 (2015). 만다라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2(6), 1787-1806.
- 문용린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글이랑*.
- 박서희 (2019). 가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6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심리적 변환'.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0(2), 51-76.
- 박혜영 (2015). 불안정 애착 유형 아동에 대한 모래놀이치료 효과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3, 87-110.
- 신지예, 홍성두 (2016).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7(3), 173-190.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장미경, 박애규, 정은진, 곽수경, 이여름, 이세화, 류지혜, 이경희 (2024). 모래놀이치료자의 병행적 전이/역전이 경험에 대한 융학과 예술기반 연구.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5(3), 19-85.
- 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21).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곽수경 / 6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및 치료자 역전에서 나타난 모-자녀 단일체와 이후 경험에 대한 융학파 예술기반 사례 연구

- Abramson, P. R. (1992). *A case for case studies*. Sage.
- Andersen, H. (2017). 백조왕자. (이지원 역). 논장. (원서출판 1838)
- Angrosino, M., & Rosenberg, J. (2011). Observations on observation.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 467-478.
- Balint, M. (2011). 기본적 오류 - 퇴행의 치료적 측면들 -. (이귀행, 전현태 공역). 하나의학사. (원서출판 1968)
- Bowyer, R. (1970). *Lowenfeld world technique*. Pergamon Press.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9-105.
- Burnett, F. (2011). 비밀의 화원. (원지인 역). 보물창고. (원서출판 1911)
- Campbell, J. & Moyers, B. (2020). 신화의 힘. (이윤기 역). 북이십일. (원서출판 1991)
- Cooper, J. (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이윤기 역). 까치글방. (원서출판 1978)
- Driver, C. (2022). 마이클 포담(Michael Fordham)의 인간발달이론.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3(2), 15-28.
- Eliade, M. (1996). *Pattern in comparative religion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원서출판 1958)
- Fordham, M. (2013). *New developments in analytical psychology*. Routledge. (원서출판 1957)
- Kalff, D. M. (2012). 도라칼프의 모래놀이: 융심리학적 치유법. (이보섭 역). 학지사. (원서출판 2000)
- Kvale, S. (1994). Ten standard objections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2), 147-173.
- Luoma, J. B., Hayes, S. C., & Walser, R. D. (2012). 수용전념치료 배우기. 학지사. (원서출판 2007)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97).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생과 개별화.(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서출판 1975)
- Merriam, S. B. (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강윤수, 고상숙, 권오남, 류희찬, 박만구, 방정숙, 이중권, 정인철, 황우형 공역). 교우사. (원서출판 1998)
- Neumann, E. (2010). 의식의 기원사.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원서출판 2004)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take, R. E. (2000).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공역). 창지사. (원서출판 1995)
- Trevarthen, C. (1998). The concept and foundations of infant intersubjectivity. In S. Bråten (Ed.), *Intersubjective communication and emotion in early ontoge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B. (2009).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김태련 외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2005)

Weinrib, E. (1991). Model of psyche, *Journal of Sandplay*, 1(1), 49-53.

Weinrib, E. (2004).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Temenos Press.

Wilber, K. (2016). 켄 윌버의 신. (조옥경, 김철수 공역). 김영사. (원서출판 2005)

Winnicott, D. (1997).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서출판 1971)

Yin, R. K. (2016).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송민채 공역). 한경사. (원서출판 2014)

투고일: 2025. 01. 30
수정일: 2025. 03. 04
게재확정일: 2025. 03. 14

Jungian Arts-Based Case Study on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Experiences in a 6-Year-Old Girl's Sandplay Therapy and the Therapist's Counter-transference

Sookyung Kwak*

This study explored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experiences through sandplay therapy sessions conducted with a 6-year-old girl exhibiting low self-expression and poor peer interactions. It also examine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toward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The participant attended 19 weekly sandplay therapy sessions, each lasting 40 minutes. Data included the child's behaviors, symbolic representations in her sandpictures, an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during both the sessions and the writing proc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erriam's case study method and the Jungian arts-based research framework proposed by Jang et al. Results revealed a sequential progression across five themes: initially, a state of freezing to avoid mistakes, followed by confronting prematurity as a step toward maturity, then fully embracing the present, leading to finding balance, and finally, stepping into a broader world. These themes were elucidated through descriptive text and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andpictures.

Key words : sandplay therapy, mother-child unity, developmental progression, Jungian arts-based research, counter-transference

* Corresponding Author,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Dankook University
/ E-mail: zskwak@dankook.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In Frances Hodgson Burnett's novel *The Secret Garden*, a girl named Mary is portrayed as irritable and stubborn. Raised by obedient servants in place of her busy parents, Mary is sent to live with relatives after losing her parents to an epidemic. There, she clashes with her cousin Colin. Colin's father, devastated by an accident that took his wife's life, has distanced himself from his son, causing Colin to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However, after meeting Mary and their friend Dickon, Colin begins to heal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as they work together to restore the hidden garden.

Like the characters in this novel, children who experience the absence of a caregiver or an unstable caregiving environment during infancy may struggle wi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cluding difficulties in forming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infancy stage is particularly crucial because it marks the beginning of the drive for self-realization (Neumann, 2004/2010). Erich Neumann (2004/2010) explained that newborns initially develop consciousness in a state of “mother-child unity,” where they coexist in close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At this stage, the role of a good mother—who provides food, comfort, protection, and emotional security—is essential. Donald Winnicott (1971/1997) emphasized the need for a “good enough mother” during this period, stating that an infant can mature properly only when such a caregiver is present. The concept of a “good enough mother” refers to a healthy mother who behaves spontaneously and responsively—holding the infant warmly, meeting their needs satisfactorily, and allowing the child to experience a balanced sense of omnipotence without disruption (Winnicott, 1971/1997). Similarly, Fordham argued that infants achieve sta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through cycles of self-deconstruction and reintegration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as cited in Driver, 2022). In other words, when an infant expresses discomfort through crying or other means—essentially breaking down their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ate—a good enough mother responds sensitively, helping the infant regulate and reintegrate their deconstructed state.

If a child experience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sence of a caregiver during infancy and does not receive sufficiently good care, they may struggle to recognize and express their emotions. Trevarthen (1998) suggested that infants develop a foundation for social bonding through primitive vocal interactions with their mothers. Mahler et al. (1975/1997) explained that mothers act as a reflective reference framework by resonating with and expressing the internal states of infants, allowing infants to monitor their own behavior. Through this process, infants learn to express emotions in a way that others can recognize. If a child lacks sufficient early experiences of vocal interaction with a caregiver and does not receive a reflective reference framework to monitor their behavior, they may fail to develop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express their emotions. This, in turn, can lead to difficulties in forming

relationships. Emotional intelligence—defined as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express emotions in oneself and others,” “the ability to regulate emotions in oneself and others effectively,” and “the ability to use emotions to plan and achieve life goals” (Salovey & Mayer, 1990, as cited in Shin & Hong, 2016)—plays a crucial role in social development. A low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may result in difficulties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emotions, leading to social challenges such as withdrawal or hyperactiv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oon, 1997, as cited in Kim & Chun, 2015).

When a child fails to form a stable maternal image, difficulties in recognizing and expressing emotions can extend to challenges in building relationships. To address this, the child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experience the early developmental stages where these disruptions occurred (Mahler et al., 1975/1997). Sandplay therapy can serve as an effective method for this process. Developed by Dora Kalff, Sandplay therapy integrates Jungian analytical psychology with Margaret Lowenfeld's World Technique, which involved using toys in therapeutic work with children (as cited in Turner, 2005/2009). Play serves as a transitional object that helps children adapt their fantasies of omnipotence to external reality as they grow (Winnicott, 1971/1997). In particular, Sandplay therapy, which uses sand and various figures, functions as a therapeutic mechanism that allows the child to experience the mother they lacked during their upbringing. Within a safe and protected space, the child can reconnect with archetypal mother energy (Jang, 2017). The Sandplay therapy setting provides a judgment-free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freely express their sense of omnipotence and experience unconditional empathy. By offering a deep sense of security, Sandplay therapy helps fulfill the missing early developmental stages and supports the growth of the ego (Kalff, 2000/2012).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at Sandplay therapy helps individuals re-experience early developmental stages where disruptions occurred, allowing them to progress in their development. Kowen (2017) introduced a case in which a child successfully adapted to real life by separating from the archetypal negative mother figure through Sandplay therapy. Park (2019) presented a case where a child facing family issues achieved emotional development. Additionally, Park (2015) demonstrated that Sandplay therapy improved interpersonal skills and social adaptability in children with insecure attachment.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al journey, this study not only observed participants' behavior and analyzed the symbolism in their sandpictures but also explored my own counter-transference as the researcher during Sandplay therapy sessions and the post-therapy writing process. Counter-transference refers to the therapist's responses toward the client during therapy (Cheon et al., 2021). Fordham (1957/2013; cited in Jang et al., 2024) explained counter-transference as the extension of the client's internal psychological processes, which are projected onto the therapist as what the therapist believes to be their own feelings

or behavior. Jang et al. (2024) noted that experienced Sandplay therapists may become aware of having similar experiences to their clients either immediately during the therapeutic process or after some time has passed.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documented my own counter-transference both during the Sandplay therapy sessions and later during the writing process, using free association and dream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no culture exists in isolation from its context. Therefor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lived experiences, researchers must adopt a holistic approach and actively engage with participants (Angrosino & Rosenberg, 2011). Jang et al. (2024) also conducted research using a Jungian Arts-Based Research (JABR) methodology, integrating daily life and research while exploring a deeper *knowing* of parallel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Following this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aimed to holistically integrate the perspectives of therapist and researcher by examining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d during Sandplay therapy sessions, when I was in the role of a “therapist,” and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d during the writing process, when I was in the role of a “researcher.”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how a six-year-old child, who exhibited low self-expression and little interest in peers, re-experienced the mother-child unity in a healthy way through Sandplay therapy and how her development unfolded afterward.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bined observations of the participants' behavior, symbolic analysis of sandpictures, and an exploration of my own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s during both the Sandplay therapy sessions and the writing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s guiding this study was as follows: What did the six-year-old participant, who showed low self-expression and little interest in peers, reveal through Sandplay therapy? What insights di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provide about the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processes?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Design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study, focusing not on verifying or measuring theories but on understanding how research participants interpret their experiences (Merriam, 1998/2005). Among the various types of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employed a case study methodology, which aims to develop a detailed description and analysis of a unique situation and the meanings embedded within it (Stake, 1995/2000). A case study provides an intensive and holistic depiction of a phenomenon and is particularly useful when the boundaries between the phenomenon and its context are not clearly defined in real-life

situations (Yin, 2014/2016). Additionally, case studies allow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on uncertain events that standard statistical approaches may overlook (Abramson, 1992), and the synthesis of this evidence to derive new insights (Yin, 2014/2016).

Jungian art-based research seeks to explore the essence of knowledge not only through reasoning but also by artistically expressing the unconscious, which manifests through emotions, senses, intuition, imagination, and symbolic images—elements traditionally considered non-objective (Jang et al., 2024). All humans have an inherent drive toward a creative life. Therefore, not only the works of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any artistic expressions made by anyone, regardless of the medium, can be considered artistic creations (Jang et al., 2024).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ed to access knowledge at the unconscious level by utilizing photographs of the sandpictures creat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 as well as images I collected and newly created in relation to my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s.

2. Research Participants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Purposive sampling refers to a process in which the researcher directly selects individuals who can provide the most inform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is will lead to knowledge discovery, deeper understanding, and insight (Merriam, 1998/2005). I frequently encountered mothers who visited the counseling center with their children due to concerns about their child's adjustment to major life changes, such as moving to a new home, the birth of a younger sibling, or entering elementary school. Mothers of children with low self-expression and no friends often expressed even greater concerns. Wanting to explore in greater depth how such children grow through Sandplay therapy, I invited the mother of a six-year-old girl—who was about to enter elementary school, showed low self-expression, and had little interest in peers—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mother agreed to the child's participation. As I encountered similar clients over time,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andplay therapy sessions served as a valuable reference. With time, I repeatedly discovered new aspects that had not been initially recognized. This led to the decision to further explore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d six years after the participant's Sandplay therapy had ended, in order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nt's therapeutic process.

The research participant was the only daughter of a couple, both 36 years old. She was raised by her mother until she was 13 months old, after which she lived with her maternal grandparents until she was 26 months old. During this period, her parents, who were both working, could only see her on weekends. At 26 months, she returned home and began attending daycare. Due to a family move, she changed childcare facilities twice—once at age four and again at six years, three months. The participant's mother experienced two

miscarriages in the mid-stages of pregnancy when the participant was around four years old. During each three-month recovery period, the participant's grandparents took full responsibility for her care.

The child's first impression was striking, with large eyes, fair skin, and long hair. She was neatly dressed, and her hygiene was well maintained. However, she spoke very little, responding to my questions with only brief answers. She sat still with no change in facial expression, staring at the figure shelf. Given her limited speech and low social interaction, the possibility of autism spectrum disorder was initially considered. However, based on the intake interview and observations during Sandplay therapy, autism spectrum disorder was not indicated.

A Sentence Completion Test and a House-Tree-Person test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low interaction with people other than the mother, signs of maladjustment, a lack of interest in both the inner world and the outer environment, reduced social engagement, limited autonomy, and the presence of regressive and infantile characteristics.

3. Data Collection

Data collection took place over two periods: during the 19 sessions of Sandplay therapy from September 19, 2018, to April 3, 2019, and during the writing process of this study from October 2024 to February 2025. The research participant attended one 40-minute Sandplay therapy session per week. Parent counseling was conducted either in person or via phone, depending on the mother's schedule. The sandpictures created during therapy were photographed at the end of each session. Conversations from Sandplay therapy and parent counseling were not record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cipant's mother; instead, they were documented manually. To minimize data loss, the participant's nonverbal expressions and my counter-transference as a therapist were recorded on the same day the therapy sessions were conducted.

During the writing phase, my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s were explored through past events, associated images, and dreams that emerged while transforming the collected data into written form. Thoughts that surfaced in daily life were frequently noted using a mobile memo app. Additionally, I collected images by drawing, using previously taken photographs, and generating image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rograms.

4. Data Analysi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following the method proposed by Merriam (1998/2005) and the JABR analysis method outlined by Jang et al. (2024). The process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words and behavior—collected during Sandplay therapy sessions—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and reports from the participant's mother were documented on the same day each session took place. Second, a symbolic interpretation of the sandpictures was conducted. The interpretation involved answering key questions, including: how the therapist felt when first viewing the sandpicture, associations, overall attributes of the sandpicture, the first element that drew the therapist's attention, mythologies or fairy tales related to the sandpicture, and insights gained about the participant from this process (Jang, 2017). Third, the documented data were reviewed to identify recurring information, from which keywords were extracted. These keywords were then grouped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to derive overarching themes. Fourth, as the data and themes were organized into the study's formal structure, additional associations that emerged were recorded from a counter-transference perspective. This counter-transference documentation included my feelings, sensations, and intuitions that arose while reviewing the data and themes. In addition to written descriptions, related images were either collected or created. Fifth, the final themes were documented using both textual descriptions and visual representations, categorizing the content into two sections: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an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5. Validity and Ethical Considerations

As a qualitative study, this research sought to ensure validity based on Kvale's (1994) criteria of professional validity, communicative validity, and pragmatic validity. First, to establish professional validity, which examines whether theoretical interpretations were applied to the study (Kvale, 1994, as cited in Kim, 2016), continuous consultations were held with a professor qualified as a Sandplay therapy supervisor and Jungian analyst during the case analysis. The analysis was further reviewed by three Sandplay therapy supervisors. Second, to ensure communicative validity, which verifies validity through dialogue with an interpretive community (Kvale, 1994, as cited in Kim, 2016), two doctoral candidates in counseling were asked whether the counter-transference descriptions helped them understand the study from a reader's perspective. Since this study values counter-transference as a su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therapist or researcher, it did not assess validity based on Kvale's (1994) criteria for research findings. Instead, it evaluated validity by communicating with others about whether the counter-transference descriptions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Lastly, to confirm pragmatic validity, which assesses whether research findings can be applied in real-life practice (Kvale, 1994, as cited in Kim, 2016),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on the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processes. Additionally, it documented the researcher's experiences during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offering practical insights into challenges therapists may encounter and possible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m in clinical settings.

Since the research participant in this study was a child,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tudy were explained to her mother. Written consent was obtained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for the use of sandpicture photographs in research. The participant's identity remains anonymous in this study, and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modified as needed without altering its meaning. It was also explained that participation in the study was voluntary and could be withdrawn at any time.

III. RESEARCH FINDINGS

The research participant, who exhibited low self-expression and little interest in peers, revealed experiences in Sandplay therapy that, along with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provided insight into the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processes. These experiences emerged as five themes over time. Each theme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ections and divided into two perspectives: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through behavior, language, and symbols, an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experienced during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and the later writing phase.

1. A State of Freezing to Avoid Mistakes

1)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Being Frozen Like an Ice Princess



Figure 1. Sandpicture from Session 1

The research participant was given the nickname “Ice Princess” at kindergarten due to her aloof demeanor. In the therapy room, she silently gazed at the figure shelf before quietly scooping and pouring sand with a sand shovel. However, in the sandpicture photographed after the session—taken with the lights off— numerous handprints were visible. While she appeared calm on the conscious level, her unconscious seemed to express something more dynamic.

As Weinrib (2004) suggested, the participant seemed to simultaneously present both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in this first sandpicture. By repeatedly scooping and pouring sand—a type of play typical of children around age four (Bowyer, 1970)—she appeared to be expressing a need for containment. She needed to fully experience the mother-child unity—represented by the overlapping starfish—before she could endure interactions with others. The sandpicture, depicting a face with contrasting features—sad eyes and a smiling mouth—along with a mark resembling a V-sign made with fingers, seemed to mirror the participant's own ambiguous emotional state. Ultimately, she must remove the shovel blocking the nostrils and breathe on her own—whether experiencing the unpleasantness of a bad smell or the pleasure of a good fragrance, she needs to confront these experiences.

2)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Fear of Ruining the Baby with My Mistakes



Figure 2. A Broken Relationship (Photographed by the Researcher)

The moment I saw the participant—who appeared bright and capable—I formed an expectation that Sandplay therapy would help her grow into an outstand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However, after only 20 minutes into the session, the participant suddenly murmured, “I’m done.” I was caught off guard, unsure of what to do for the rest of the session.

When I became pregnant, there was a strong desire to raise the baby in the “best” possible way. Many parenting books were read in preparation for childbirth. But after birth, the baby slept during the day and stayed awake at night. Exhausted, I often ignored the baby's cries, and even when I reluctantly picked the baby up, irritation frequently surfaced. All the parenting knowledge gained before birth seemed useless. It felt like I needed to step back from being the primary caregiver, afraid I might “ruin” the baby with my mistakes as a

mother. In the end, I underwent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later received long-term educational analysis on achievement motivation. Through this, I came to realize that the concept of being the “best” neither truly exists nor holds any real meaning. Yet, once again, the desire to achieve something remarkable resurfaced. I felt nothing but confusion and dismay. Just as I grappled with these emotions, I imagined that the participant child, too, might feel frozen in uncertainty, unsure of how to speak or act. This thought was recorded on the margin of my records.

The writing process for this study took place after the therapy terminated. I was determined to accurately capture the participant's remarkable developmental progress in writing. However, no words seemed to come. Unable to even begin, I simply stared at a blank screen. Perhaps the participant had felt the same way. Even if only on an unconscious level, she may have remained silent out of caution, afraid of ruining her relationships with peers.

2. Confronting Prematurity as a Step Toward Maturity

1)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Growing Again from an Infant

In Hans Christian Andersen's fairy tale “The Wild Swans,” the protagonist's brothers are transformed into swans (Andersen, 1838/2017). In Greek mythology, Leda, the wife of King Tyndareus of Sparta, gave birth after lying with Zeus, who had taken the form of a swan. Campbell and Moyers (1991/2020) interpreted this as a “second birth,” symbolizing spiritual rebirth. Recalling these stories, the swan pushing a boat onto the sand in session 2 seemed like an unintegrated animus. The boat sailing on the sea's surface resembled humans who live with awareness only at the surface level of the unconscious. There was a hope that the swan, representing the animus, would become conscious and facilitate growth.



Figure 3. Sandpicture from Session 2

In session 3, the participant created a room for princesses in the center of the sand tray, surrounded the room with tall trees, and then drew a circular boundary around it. The enclosed, circular princess room evoked the image of Gilgamesh lying inside a circle drawn

with flour, receiving divine messages through dreams (Kim, 2020). This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before long, the participant might encounter the Self within that space.

In addition to the boat pushed by the swan, a train that required tracks to move appeared in session 3. By session 4, the swan had grown increasingly indifferent to the boat, while the train tracks became more pronounced. In session 5, there was even more space for the tracks. The research participant frequently requested to take photos of her sandpictures and send them to her mother. However, in session 5, the train in the photo sent to the mother was obscured by trees. This seemed to express the child's desire to conceal her growth from her mother and remain in her embrace.



Figure 4. Sandpicture from Session 5 (Front View)



Figure 5. Sandpicture from Session 5 (Side View)

By session 7, the trees had disappeared, and marbles were scattered. These marbles resembled archetypal images surfacing into consciousness, as described in Estelle Weinrib's (1991) diagram of the psyche. In the very next session, the participant drew a mask, which seemed to serve as an unconscious guide to focus on the persona depicted on the surface of the psyche diagram.

From session 7 onward, a truck capable of moving without tracks appeared. The baby and princess figure, which had stood side by side in session 7, were positioned facing each other

in session 8. This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they now recognized each other as independent beings. Additionally, the previously empty round table was now set with food. In the early uroboric stag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when the mother and child are perceived as one, the mother is seen primarily as a provider of food (Neumann, 2004/2010). Hence the table with food can be understood as a symbol of growth—the ability to prepare food for her own, based on her past intimacy with the m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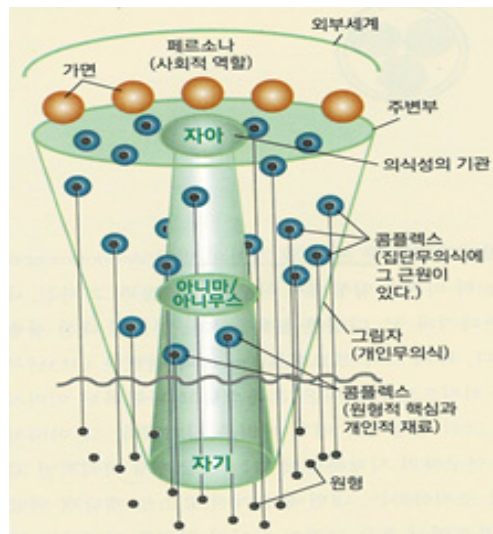


Figure 6. Estelle Weinrib's Diagram of the Psyche (Weinrib, 1991, as cited in Jang, 2017)



Figure 7. Sandpicture from Session 7

Upon learning of her mother's pregnancy, the research participant recreated the princess room in session 11. While this appeared to be a regression, a subtle change was noted—the trees had become smaller. She also attempted to secretly take a heart-shaped marble from the therapy room, which may reflect feelings of loss regarding affection or care due to her mother's pregnancy (Jang, 2017). After failing to take the marble, she gazed at the

sandpicture and remarked, "It's obviously a desert." This statement seemed to express the helplessness of being unable to restore her desolate inner world, no matter how hard she tried.

2)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Feeling Together, Not Just Observing

During session 3, I felt a sense of anticipation as the participant placed a baby figure in the tray and identified it as herself could psychological development already be beginning? However, almost immediately, she concealed the princess room with large trees and drew a boundary with a shovel. This evoked the mother's remark about her having no idea what the participant was thinking. I wondered whether, just as her hasty expectations might have felt intrusive prompting the participant to shield herself with figures the mother's lack of empathy may have been equally invasive, leaving the participant with no choice but to retreat into silence as a defense.

Throughout the sessions, the participant repeatedly created the princess room, which gradually left me feeling fatigued. By session 5, as the densely arranged figures were further buried under filler material, I felt increasingly stifled. When the participant then draped a handkerchief over the figures, this sensation intensified. The mounting boredom and frustration eventually led to drowsiness, making me question whether I was an unprofessional therapist, incapable of staying fully engaged.



**Figure 8. At a Water Park with the Children
(Photographed by the Researcher)**

While writing, I recalled a past visit to a water park with my own children. I was standing at the edge of the wave pool, taking photographs. Keeping my balance against the waves was difficult, and eventually, I was knocked over. Giving up on taking pictures, I moved to the center of the pool, closer to my children, where the waves were calmer. To my surprise, it was much more comfortable, and I still remember the sensation of floating with the waves, accompanied by a feeling of joy. This memory made me realize that I had been limiting the concept of therapeutic containment to merely "observing and analyzing" the client with no

other thoughts in mind. In focusing solely on watching and analyzing the participant's actions, I had neglected to engage with the emotions arising in my own body. Had I fully embraced the drowsiness that overtook me, I might have gained deeper insight into what was in the participant's psyche, which travels back and forth between the unconscious and the conscious—akin to the moments just before falling asleep. The missed opportunity left me with a lingering sense of regret.

3. Fully Embracing the Present

1)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If I'm Okay, That Is Enough

During session 9, the research participant gazed at the bride's veil and decisively declared, "It would look prettier without this!" Without hesitation, she removed the veil. In wedding ceremonies, the bride traditionally unveils her face only after the officiant pronounces the couple married. The moment the participant took off the veil felt akin to that very pronouncement of union. The round table, adorned with food, resembled a wedding banquet table. The participant showed this sandpicture to her mother and grandfather. Unlike previous sandpictures, the arrangement of the figures was somewhat disorderly, leaving the mother at a loss for words, responding only with a smile. However, the participant wore a proud expression. At this stage, she seemed capable of finding and fully savoring moments of personal significance, regardless of how others reacted.



Figure 9. Sandpicture from Session 9

The marbles, which reminded me of archetypal images that surfaced into consciousness in Weinrib's (1991) diagram, were placed on each of two trucks, as well as on the back of the animus-representing swans. Marriage is not an ending but a ritual marking the union of two distinct individuals who, through mutual sacrifice, step into a new phase of society (Campbell & Mayers, 1991/2020). I found myself wondering what role these marbles would play in the participant's next stage of development.

2)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Encounters with Previously Unknown, Better Things

During session 9, as the research participant removed the veil from the bride, a shiver ran down my arms, and an overwhelming sense of emotion, as if witnessing a real wedding, washed over me. Seeing the participant proudly gaze at her sandpicture, unaffected by her mother's reaction, I felt deeply moved, my eyes welling up with tears.



Figure 10. Ever-Changing Scenery of the Park (Photographed by the Researcher)

I have undergone cancer surgery in the past. More than the ongoing treatments, the fear of recurrence was the most difficult part. Afraid that stress might trigger a relapse, I left my job. But that decision allowed me the luxury of walking my youngest child to school. I came to cherish the soft warmth of her hand, the way the park's scenery changed daily, and even the lighthearted jokes from the owner of my favorite coffee shop. In the midst of my fear of recurrence, I discovered the beauty of everyday life. I remember resolving that such ordinary yet precious days were enough—that I should not waste them constantly preparing for an uncertain future. I wondered what had allowed the child to break free from her mother's evaluations. Perhaps, like me, she had encountered something far better than she had ever known. If my revelation was the beauty of daily life, hers might have been the joy of doing something for herself—not for her mother's approval, but simply because it felt good to her.

4. Finding Balance

1)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Holding Out as Long as Possible

In Session 5, the research participant made a renewed effort to follow the rule against placing clay figures in water. She used a sponge to remove excess water from the sand tray, demonstrating her commitment to adhering to the guideline. Additionally, she carefully followed the rule of using a coupon when sending a photo of her work to her mother introduced because she was focused on creating a sandpicture that would earn her mother's praise.



Figure 11. Sandpicture from Session 10

In session 10, which took place shortly after she found out her mother was pregnant, marbles symbolizing the persona archetype seemed to be pouring from the sky, almost landing on a girl in a school uniform. Each transformation is a process of death and rebirth: death to the old level, and transformation to and rebirth on the newly emergent level (Wilber, 2005/2016). Therefore, to enter the new stage of becoming an older sister, the participant had no choice but to face the fear of death, and this fear seemed to be expressed in the sand tray.

By session 12, she showed signs of accepting her mother's pregnancy. Using both hands, she traced swirling patterns in the sand. Spirals symbolize the source of life and natural energy, and in Hinduism, they represent pregnancy (Cooper, 1978/1994). The two spirals even resembled breasts in shape. The participant also poured water from a teapot shaped like a conch—symbolizing abundance, growth, and childbirth (Cooper, 1978/1994)—to create the spirals. In session 13, she placed a small bed in the sand tray, appearing to express acceptance of her younger sibling.

Still, she seemed unwilling to share her mother's love just yet. In session 14, she said she wished her mother would always look at the photos of her sandpictures. She also openly expressed jealousy toward the unborn sibling and clung tightly to her mother while napping, as if trying to create a mother-child unity experience. By session 16, she even scattered sand on the floor, much like a child refusing to accept a new sibling and insisting she is still a baby.

2)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A Good Way of Testing Limits Through Action First, Confirmation Later

In session 10, the participant created a sandpicture in which a girl in a school uniform stood firm amidst the falling marbles. She would soon have to share her mother's love with her younger sibling and take on the role of an older sister, yet there was a sense of determination in her work, as if she were choosing to face this change with courage. It was touching to witness. Unlike before, her sandpicture now seemed barren, which felt

disheartening. However, I reassured myself by recalling Turner's (2005/2009) perspective—that an empty space in the sand tray can represent a frontier where new existence emerges.

By session 16, the participant hesitated and glanced at me before scattering sand onto the floor. Until then, I had felt concern and empathy for her, but in that moment, I could not help but feel disappointed, as if she were testing my limits to see how much I would tolerate. Eliade (1958/1996, as cited in Turner, 2005/2009) describes the act of scattering as a ritual for enriching the land. I decided to endure my disappointment by imagining that her previously barren inner world—expressed in Session 11—was now being made fertile through this act.

When I began writing this study, I had a dream about urinating into a traditional squat toilet. I struggled to aim properly to keep the urine from spilling outside the toilet. Then, suddenly, a soft white blanket covered the toilet. I had the thought that the blanket would have to become fully soaked for the toilet's shape to be revealed, so I relaxed and relieved myself onto it. At first, I thought it was a shame that the participant seemed to be testing my boundaries. But then, I began to wonder if this was her way of figuring out what was acceptable and what wasn't—by acting first and watching my response. That's when it hit me: this was exactly the moment I had hoped for in our first session, when she had been too cautious to take any action for fear of harming relat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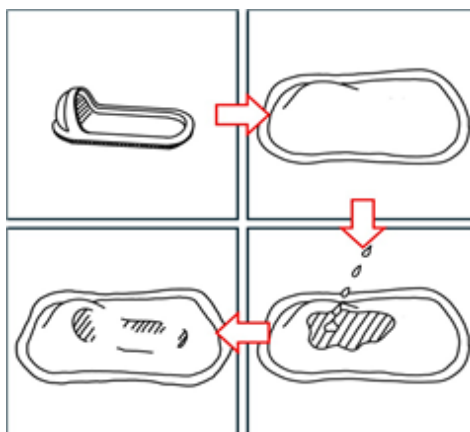


Figure 12. Sketch of a Dream Scene (Drawn by the Researcher)

5. Stepping Into a Broader World

1)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Giving It a Try, Even If It Is Not Perfect

In session 15, when the participant created a sandpicture with her mother, the mother built a village using building figures. In session 16, the participant also began using building figures.

By session 17, she placed a Renaissance-style building with columned decorations directly in front of her. Considering how the Renaissance brought widespread societal change, this building seemed to symbolize the participant's own reality, as she was preparing for major transitions gaining a younger sibling and entering elementary school. In the sand tray, the area directly in front of the participant represents the most important theme in her current awareness (Turner, 2005/2009). The sandpicture suggested that the child clearly recognized the changes she was about to face.

Ammann distinguished the left side of the sand tray as more unconscious and the right side as representing the conscious outer world (as cited in Turner, 2005/2009). In session 17, the movement of cars from the left to the right side of the sand tray appeared to reflect the participant's growing adaptation to reality and her increasing interest in relationships. Additionally, marbles that had been dropped from a waterfall were later transported by a truck and arrived in front of a house. This seemed to symbolize an internal force that had previously remained as potential energy at the top of the waterfall but had successfully transformed into kinetic energy. The marbles did not stop there—they moved beyond the primitive natural setting of the waterfall and into the village of reality, where the participant lived. This appeared to represent the idea that energy from the Self-archetype, symbolized by the earth and mother nature, was now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ego.



Figure 13. Sandpicture from Session 18

In session 18, a village was created. A schoolgirl in a uniform was placed on a bridge, while cars passed underneath, forming a cross shape. The image of princesses gathering at school suggested that peer relationships were becoming significant in the participant's real life. The participant was aware that, at the mother's request, the next session would be the last. She asked for a photo to be taken to send to her mother, then flipped over the cars and buildings. The disordered sand tray seemed to indicate that she was not yet ready for therapy to end.

The final session, Session 19, was attended by both the mother and the father. The first figure the participant placed in the tray was a bridge, positioning it at the center, as if emphasizing that relationships with others were the most important aspect for her. The fact that she represented her own home as the largest house at the front of the bridge further suggested that she was actively engaging in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e also placed various types of cars in the tray and remarked that since it was morning, they needed to leave the parking lot. Considering that cars can symbolize drives that need to be regulated by the ego (Bradway, 2001), this seemed to indicate that her desire to form relationships had become conscious. Additionally, she left the baby figure her mother had placed in the tray just as it was, as if acknowledging the baby sibling as a new presence in her life. However, certain elements in the sand tray still represented tasks she needed to work through, such as the cars that remained parked and the fact that she depicted herself as smaller than her baby sibling.



Figure 14. Sandpicture from Session 19

2)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A Feeling of Not Wanting to Go Back

In session 18, just before taking the photograph, the participant flipped over the cars and buildings. This seemed to express not only that she was not yet mature enough for termination but also a desire to keep her inner world hidden. However, it was reassuring to see that she had developed the ability to create a safe and free environment for herself—something I had hoped to provide throughout the therapy process. Despite this reassurance, I terminated the therapy with some concern. The participant was already facing the challenges of becoming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now she also had to take on the role of an older sister. Managing both at the same time seemed overwhelming for her.

Near the end of the writing process for this study, I had a dream in which my youngest child stood next to two stray dogs. I desperately shouted for her to get inside a small sleeping bag, but she remained still. Upon waking, I realized that the dogs had not been

large enough to seem truly threatening, and the sleeping bag was far from being a real protection. It was unclear whether the child in the dream had intended to run away or befriend the dogs, but one thing was certain—she had chosen not to retreat into the sleeping bag, which was unlikely to provide real protection. I came to understand that this choice was the right one. I also realized that, similarly, the participant—now stepping out of the Sandplay therapy room into the world 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an older sister—was not necessarily in a bad situation.



Figure 15. Dream Scene (Created by ChatGPT)

IV. DISCUSSION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processes disclosed through Sandplay therapy by a six-year-old child with low self-expression and little interest in peers, along with insights gained through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The findings emerged over time and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themes:

The first theme was “a state of freezing to avoid mistakes.” The participant's behavior, language,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were identified as “being frozen like an ice princess,” while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was described as “fear of ruining the baby with my mistakes.” The participant repeatedly engaged in play typical of four-year-old children, expressing a need for containment. Through a face with sad eyes and a smiling mouth, she conveyed emotional confusion. Recalling my past anxiety about raising my baby well and my struggle to begin writing about the case out of fear of misrepresenting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I speculated that the participant, too, may have remained silent out of fear of

damaging her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s first theme reflects the participant's primary issue: her low level of self-expression. Her frozen, uncertain demeanor in social interactions appeared to stem from the psychological absence of a caregiver in several ways. First, she may not have had sufficient experiences of having her emotions appropriately acknowledged by her caregiver. Mahler et al. (1975/1997) explained that a mother who resonates with and expresses her infant's internal state provides a reflective reference framework that helps the child monitor their own behavior. However, the participant's mother mentioned that she often struggled to recognize others' emotions and only later realized the discomfort her spouse had experienced while living with her parents. Given this tendency, it is likely that she was unable to fully serve as a reflective reference framework for the participant. Second, the participant's caregivers may not have provided effective models of communication. The mother used phrases like "I'm not too worried, but t..." and "There's no problem right now, but..." expressing uncertainty about whether she considered the participant's situation a real issue. This mirrored the participant's chief complaint as reported by the mother—not knowing what she is thinking. Similarly, the participant's father appeared to have responded to discomfort with vague, nonverbal expressions while living with his in-laws. Additionally, reports that the participant's maternal grandparents primarily cared for her by having her watch TV often suggest that she had limited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adults and develop emotional responsiveness through social modeling. Third, the mother'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uggles following two miscarriages may have hindered the participant from receiving sufficient acceptance from her primary caregiver. Fourth, frequent changes in primary caregivers and caregiving environments may have contributed to a lack of consistent emotional acceptance. The mother, unlike the grandparents, adopted a stricter parenting style. The participant, having had limited opportunities to go through a "period of indulgence" necessary for attachment formation, may have adjusted her behavior to meet her mother's expectations rather than expressing her own needs.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underdeveloped emotional and expressive abilities may lead to the exhibition of withdrawal or excessive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oon, 1997, as cited in Kim & Chun, 2015). The participant seemed to form relationships by adapting to others rather than expressing her own desires, ultimately leading to her primary issue: social withdrawal in peer interactions.

The second theme was "confronting prematurity as a step toward maturity." The participant's behavior, language,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were categorized as "growing again from an infant," while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was described as "feeling together, not just observing." The participant expressed her inner growth using a boat, a train, and a truck. She also used marbles, which seemed to resemble archetypal images emerging into consciousness. I experienced counter-transference in the form of drowsiness and later regretted not fully embracing this sensation, as doing so might have provided deeper insight into what is in the

participant's psyche at the border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is theme aligns with Balint's (1968/2011) perspective on the therapeutic function of regression. A child must experience the mother-child unity to a sufficient degree before progressing to later developmental stages. If this experience is incomplete, the child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experience the early developmental stages where disruptions occurred (Mahler et al., 1975/1997), meaning they must be allowed to regress therapeutically. Balint (1968/2011), in his research on patients for whom verbal therapy was ineffective, distinguished between two phases of regression: the Oedipal stage, associated with the triadic relationship between mother, father, and child, and the pre-Oedipal stage, which pertains to the dyadic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He found that patients who regressed to the pre-Oedipal stage often exhibited silence and withdrawal, isolating themselves from their environment before eventually discovering new solutions in a creative way. In such cases, he suggested that the therapist refrain from interpretation or intervention and instead play a protective role, supporting the patient's efforts and growth. Thus, when the participant remained quietly in the princess room—a space detached from everyday life—to the point of inducing drowsiness, I needed to emotionally engage with her experience, enabling her to discover creative solutions on her own while providing silent support for her process.

The third theme was “fully embracing the present.” The participant's behavior, language,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were categorized as “if I'm okay, that is enough,” while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was described as “encounters with previously unknown, better things.” The participant created a wedding scene using bride and groom figures and proudly shared it with her mother and grandfather. She had always wanted to create sandpictures that her mother would approve of, but this time, she confidently presented her work despite its somewhat disordered appearance, trusting her own feelings. This moment was deeply moving for me, reminding me of a personal experience—overcoming the anxiety of cancer recurrence by finding value in the peace of the present moment.

The participant's ability to recognize and represent what she was experiencing in the present aligned with the “here-and-now” awareness emphasized in Gestalt theory and various psychotherapy approaches (Kwon, 2012). People often spend time exploring the past or preparing for the future to eliminate discomforting experiences in which they were negatively judged. However, this can sometimes lead to avoidance of life and inner conflict instead (Luoma et al., 2007/2012). Previously, the participant had suppressed her own desires to gain her mother's approval. However, as Luoma et al. (2007/2012) suggested, flexible self-awareness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encounter with the present moment. Likewise, the participant appeared to have ceased avoiding her needs and conforming to her mother's expectations. Instead, she embraced the “here-and-now” more fully, expanding her understanding of herself.

The fourth theme is “finding balance.” The participant's behavior, language, and symbolic expressions were identified as “holding out as long as possible,” while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was interpreted as “a good way of testing limits through action first, confirmation later.” The participant gradually accepted the rules for handling clay figures and sending photos. However, I felt disappointed by her new disruptive behavior of scattering sand on the floor. Meanwhile, I had a dream about a toilet hidden under a blanket, which helped me understand that testing boundaries through action could be a valid approach.

This push-and-pull dynamic between the participant and me resembled the rapprochement phase described in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heory of Mahler et al. (1975/1997), which occurs just before a child establishes individuality. Mahler et al. (1975/1997) outlined the process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four stages: the hatching phase, where the infant breaks through the protective shell of symbiosis with the mother; the practicing phase, where the child explores independence by crawling or walking away from the mother but repeatedly returns; the rapprochement phase, where the child experiences both a desire to depend on the mother and a fear of being engulfed by her; and finally, the consolidation phase, where the child forms a stable and consistent image of the mother. During the rapprochement phase, when the child oscillates between separation and dependence, it is important for the mother to provide emotional understanding without becoming exhausted (Mahler et al., 1975/1997). Similarly,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being understood and accepted in the push-and-pull interactions likely played a crucial role in her developmental progress.

The fifth theme is “stepping into a broader world.” The participant's behavior, language, and symbolic expressions were identified as “giving it a try, even if it is not perfect,” while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was interpreted as “a feeling of not wanting to go back.” The participant's developmental progress became evident through a play in which marbles, dropped from a bridge, a Renaissance-style building, and a waterfall, were loaded onto a truck and transported to a village. However, just before taking a photograph of the sandpicture to send to her mother, the participant flipped over the figures, giving me the impression that she was being pushed to terminate the therapy unwillingly. Despite this, after a dream in which I struggled but failed to force my youngest child into a sleeping bag to protect her from wild dogs, I realized that the client's stepping into the world—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an older sister to a baby sibling—wa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At this stage, the participant was representing that she had reached the final stage of ego development, the stage of adaptation to the collective, as described by Kalff (2000/2012), meaning she had become accepted into society as an individual and was in the process of becoming part of the collective. Kalff (2000/2012) discovered that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al process proposed by Neumann is reenacted in Sandplay therapy and theorized

it in three stages: the animal, vegetative stage, the fighting stage, and the adaptation into the collective stage. In the animal, vegetative stage, representations focus on animals and plants. In the fighting stage, confrontations or wars repeatedly appear, and the protagonist gradually gains strength (Kalff, 2000/2012). Finally, in the adaptation into the collective stage, the individual is accepted as a member of society. As predicted by the participant's final sandpicture, she successfully adapted 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an older sister to a baby sibling. Three months later, during the follow-up session, the participant's mother, though overwhelmed with caring for the second child, expressed relief as the participant was happily attending school. She even mentioned that she was more worried about the participant being late to private academy classes because of playing with friends.

This study has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it provides in-depth inform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mother-child unity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progress. By presenting real-life cases of this process, th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cases where difficulties stemming from a lack of mother-child unity are a primary concern. Second, the study sought to access unconscious knowledge about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by incorporating various images related to the participant's sandpictures and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Third, the study explored counter-transference in both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and the writing process, allowing the researcher to engage as a fully integrated individual—both as a Sandplay therapist and as a researcher. This approach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lived experiences by integrating therapeutic and research perspectives (Angrosino & Rosenberg, 2011).

The study also has certai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re was a time gap, as the writing process began approximately six years after the Sandplay therapy sessions. Future studies should conduct writing and therapy simultaneously to explore how counter-transference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connects to counter-transference in the writing process. Second, in this study, the images related to the researcher's counter-transference played only a supplementary role in interpreting the participant's representations. Future research should analyze the symbols in researcher-generated or collected images more deeply to uncover experiences that participants may not have explicitly represented. Third, the Sandplay therapy sessions in this study were limited in number due to the participant's circumstances. It would be meaningful for future studies to conduct therapy over a longer period to examine how participants acquire and apply interpersonal skills in real-life settings.

Reference

- Abramson, P. R. (1992). *A case for case studies*. Sage.
- Andersen, H. (2017). *De vilde svaner*. (Lee, J-W. Trans.). Nonjang. (Original work published

- 1838).
- Angrosino, M., & Rosenberg, J. (2011). Observations on observation.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 467-478.
- Balint, M. (2011). *The basic fault - therapeutic aspects of regression-*. (Lee, G-H., & Jeon, H-T. Trans.). Hana Medical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Bowyer, R. (1970). *Lowenfeld world technique*. Pergamon Press.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9-105.
- Burnett, F. (2011). *The secret garden*. (Won, J-I. Trans.). Bomulchanggo. (Original work published 1911).
- Campbell, J. & Moyers, B. (2020). *The power of myth*. (Lee, Y-K. Trans.). Book21.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Cheon, S-M., Lee, Y-S., Park, M-S., Lee, D-H., & Ham, K-A. (2021). *Counseling psychology*. Hakjisa.
- Cooper, J. (1994).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Y-K. Lee, Trans.). Kachi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Driver, C. (2022). Michael Fordham's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an analytical psyc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3(2), 1-28.
- Eliade, M. (1996). *Pattern in comparative religion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8).
- Fordham, M. (2013). *New developments in analytical psychology*.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57).
- Jang, M-K. (2017).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Hakjisa.
- Jang, M-K., Park, A-K., Jung, E-J., Kwak, S-K., Lee, Y-R., Lee, S-H., Ryu, J-H., & Lee, K-H. (2024). Jungian arts-based research on sandplay therapists' 'knowing' of parallel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5(3), 19-85.
- Kalff, D. M. (2012). *Sandspiel: seine therapeutische wirkung auf die psyche (4. Auflage.)* (Lee, B-S.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Kim, J-S., & Chun, S-Y. (2015). Effects of mandala-centered group art therapy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ity of young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2(6), 1787-1806.
- Kim, S-H. (2020). *The epic of Gilgamesh*. Humanist Publishing Group.
- Kim, Y-C.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 bricoleur*. Academy Press.
- Kowen, M-R. (2017). A 10-year-old girl's overcoming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nd its relationship to ego development.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8(1), 1-32.
- Kvale, S. (1994). Ten standard objections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2), 147-173.
- Kwon, S-M. (2012). *Contemporary theories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Hakjisa.
- Luoma, J. B., Hayes, S. C., & Walser, R. D. (2012). *Learning ACT*.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97).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Lee, J-H. Trans.). Korean Institute of Psychotherapy.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Merriam, S. B. (2005).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Kang, Y-S., Koh, S-S., Kwon, O-N., Ryu, H-C., Park, M-G., Bang, J-S., Lee, J-G., Jeong, I-C., & Hwang, W-H. Trans.). Kyowoo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Moon, Y-R. (1997). *High EQ leads to success*. Geuleerang.
- Neumann, E. (2010). *Ursprungsgeschichte des bewusstseins*. (Lee, Y-K. Trans.).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Park, H-Y. (2015). A study on effects of sand play therapy for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3, 87-110.
- Park, S-H. (2019).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for a 6-year-old girl sharing family problems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0(2), 51-76.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hin, J-Y., & Hong, S-D.. (2016).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of students in elementary class.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3), 173-190.
- Stake, R. E. (2000). *Qualitative case study*. (Hong, Y-H., Noh, K-J., & Shim, J-H. Trans.). Chang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Trevarthen, C. (1998). The concept and foundations of infant intersubjectivity. In S. Bråten (Ed.), *Intersubjective communication and emotion in early ontoge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B. A. (2009).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Kim, T-R., Kang, W-S., Kim, D-Y., Kim, E-J., Kim, H-J., Park, R-G., Bang, H-J., Shin, M-J., Shin, M-S., Lee, G-W., Lee, G-M., Lee, J-S., Lee, J-S., Jang, E-J., Cho, S-W., & Cho, S-J.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Weinrib, E. (1991). Model of psyche, *Journal of Sandplay*, 1(1), 49-53.
- Weinrib, E. (2004).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Temenos Press.
- Wilber, K. (2016). *A sociable god*. (Cho, O-K., & Kim, C-S. Trans.). Gimyo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Winnicott, D. (1997). *Playing and reality*. (Lee, J-H. Trans.). Korean Institute of Psychotherapy.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 Yin, R. K. (2016).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hin, K-S., Seo, A-Y., & Song, M-C. Trans.). Hanky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4).

Received :January 31, 2025

Revised : March 04, 2025

Accepted : March 14, 2025